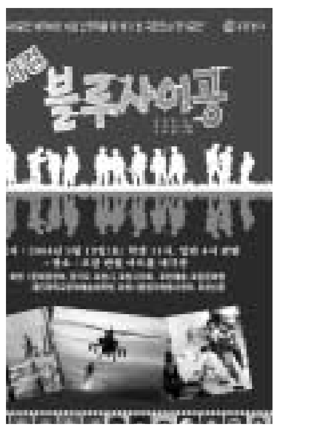
뮤지컬 블루사이공 18일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지원작 제11회 극단 한내 정기공연 오전11시, 오후4시



뮤지컬 블루사이공이 오는 18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극단 한내(대표 이희용)에 의해 무대에 올려진다.

이번 작품은 무대지원작품으로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및 포천시가 후원하여 마련한다.

오전11시 공연은 포천 관내 학생들을 위한 무대로 구성하고 오후4시 공연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연된다.

한정숙 원작을 이희용 포천연극협회장이 기획하고 포천연극협회 한대관씨가 연출하는 이번 공연은 무료공연이다.

포천연극협회 이희용 회장은 "베트남 전을 배경으로 따이한 병사들의 삶과 사랑을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극화하여 과거와 현실을 오가는 극의 변화로 극적인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뮤지컬 〈블루사이공〉은 지나간 세월의 아픔과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오랜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꼭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제6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9월1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지부장 이미숙)가 주최하고 의정부시가 후원하는 제6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가 오는 19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며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및 대학부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등으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대회는 입상자 전원에게 상금 및 장학금이 수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장관상을 유치한 대회로써 경기북부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이 대회의 특징은 엄격한 심사와 더불어 심사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참가부문은 초등부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한국무용, 발레, 외국무용부문으로 경연을 실시한다.

중·고등부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지 않고 한국무용, 발레, 외국무용으로 나눠 경연을 실시한다.

일반부 및 대학부는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 전통춤만을 대상으로 경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 접수는 오는 15일(수)까지이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031-852-9103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연재 수필

"운명의 장난"

경필이와 돈채, 그리고 제종이는 오후반입니다. 들에 일 나가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보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에 물푸기와 콩 포기 밑에 호미로 북주기, 파밭에 오줌을 끼얹어 주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애들이야 밥만 먹이면 저절로 큰다 생각하시나 봅니다.

제종이네는 고물 캘 때 쓰는 탐지기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땅위에 둥근 탐지 판을 대고 다니면 '웽'하는 소리가 나는 곳에는 고물이 묻혀 있다는 신호랍니다. 고물을 캐는 데는 군용 야전삽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뒤쪽에는 곡괭이처럼 생긴 것이 달려 있고 좀처럼 쇠가 강해서 잘 망가지지 않고 나무뿌리나 칡뿌리를 캘 때도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종이 할아버지는 유난히도 고물 모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못대가리 한 개, 삐삐선 한 토막도 예사롭게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종이네 뒤뜰에는 항상 고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영향을 받았는지 제종이는 유난히 고물을 캐거나 줍기를 좋아합니다. 공책 값은 2원이었고 지우개는 1원이었는데, M1 탄피 한 개를 팔면 2원을 주니 탄피 한 개를 줍는 것은 횡재한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경필이와 돈채, 제종이는 오후반이라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어깨에 책 보따리를 얼러 메고 학교 길에 나섰습니다. 1학년 입학할 때는 모두 어깨에 메는 가방을 사주지만 그 가방이 어디 오래 가나요? 가방의 질이 좋지 않아 2년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가방보다는 책보자기가 더 좋아합니다. 가방은 엎드리기만 하면 뚜껑이 열어져 책이 모두 쏟아지지만 책보자기는 어깨에 묶고 마구 뛰어 다닐 수 있어 편합니다.

2학년이 되면 반 아이들 대부분이 광목 보자기에 책을 둘둘 말아 어깨에 대각선으로 메어 메고 다닙니다. 여자 아이들은 책을 보자기에 말아 허리에 일본 기모노처럼 차고 다니지요. 광목 보자기는 좀 좋은 편이고, 나는 쌀자루를 펴서 책보자기로 가지고 다닙니다.

봄인지라 논에는 개굴이가 부질없이 울어대고,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면 삘기를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심심합니다. 굴렁쇠도 굴리고, 깡통도 차고, 남이 씹고 버린 껌종이도 주워 모으며, 학교에 가는 것인지 놀러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종이는 들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 책보자기를 메고 학교 길에 올랐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심재를 막 지나는 5사단 근처에서 제종이는 수류탄 두 개를 주웠습니다. 우리 동네는 조선 숙종 이후로 김 씨가 모여 사는 씨족 부락입니다.

경필이는 성이 다르지만 제종이와 돈채는 당숙과 조카지간으로 제종이가 아재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항렬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로 욕지거리 하며 잘도 지냅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있을 땐 싸우지 않는답니다. 꼭 나누어 먹으며 집안의 우의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종이는 돈채에게 수류탄 한 개를 주어 둘은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 임마야. 난 한 개 안주냐? 니덜끼리만 갖냐?" 경필이가 달라고 욕을 하며 떼를 씁니다. "야, 우리 도망가자!" 제종이와 돈채는 한 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필이를 피해 군부대 옆 논두렁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이거 까 볼까?" 제종이가 말했습니다.

"야, 하지마. 터져?" 돈채가 만류 하였습니다. "괜찮아 임마! 나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것 많이 보았어." 제종이는 능숙한 듯 말하였습니다.

야, 너 저리 가봐!" 제종이는 돈채와 거리를 띠우며 오른손으로 수류탄을 높이 들고 왼손으로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어어…" 돈채는 순간 엎드렸습니다. "꽝!" 수류탄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웨엥…" 군부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갑자기 터진 굉음에 근처 5사단 군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인들이 삽시간에 뛰어나와 제종이를 구조하였습니다. 제종이는 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제종이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손을 잃고 말았습니다. 6.25전쟁의 후유증이 배고프고 천진난만한 코흘리개 내 친구 제종이의 오른손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힘없는 나라 백성만 희생하잖아요.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포천 이동 출생
포천종고 졸업 26회 학생회장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32)

성악가 정중근

"내 목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미약하게나마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설레고 희열을 느끼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정의 미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테너 정중근(51) 씨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매개체는 바로 그의 목소리다.

독일 쾰른 음대를 졸업하고 5년여 동안 백제예술대학에서의 교수직을 거쳐 지난 97년부터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 교수를 만나보았다.

포천에서도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연결 창구가 마땅치 않다고 아쉬워하는 정중근 교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음악이죠."

정 교수의 말 속에 성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배어나온다. 그는 "인간은 음악 없이 살 수 없으며 우리 생활 대부분이 음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 교수는 클래식 음악이 대중에게 정서적인 순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일이 많은데도 아직 기반조차 잡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 아쉬운 것이다.

그는 "이왕 만들었으니 혼성 합창단으로 운영하고 보수도 넉넉히 지급해 중도에 단원들이 그만두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인에게 감동 전해주는 게 음악의 매력
포천에서도 멋진 공연 할 날 기다려

요즘에는 청소차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여전히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가신 건 아니다.

그는 "그것은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라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 공연이 대중에게 많이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라고 덧붙였다. 이런 그의 생각은 포천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에 반월아트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음향시설이나 무대가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자그마한 시에서 그 정도의 문예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랑거리인데 막상 운영은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그 역시 직원을 포함한 관장의 자질 문제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포천시립합창단이 창단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클래식 연주를 접하기 힘든 포천 관내 학교나 군부대를 돌며 찾아다니는 공연 등 할

그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도 음악에 관한 교육이나 클래식 음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나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지역이 포천이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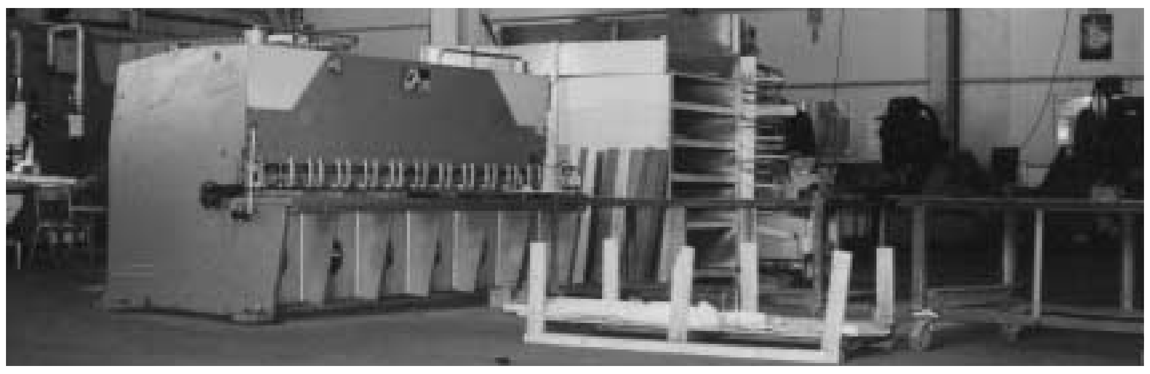
"다음달 1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대진대교수 음악회를 가져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요청해왔을 때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무료공연을 하겠다고 했죠. 포천에서도 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연결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정 교수, 하지만 곧 그는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똑같은 음악을 들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음악은 끝이 없는 작업이지만 또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라며 말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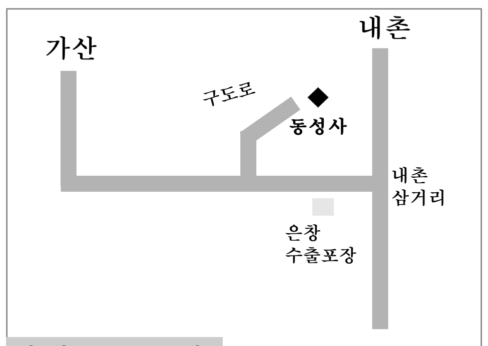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음악은 끝이 없는 작업이라 힘들지만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다면 너스레를 떠는 정중근 교수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 성 사



생·산·품·목
◇ 오디오 장식장
◇ 인테리어 소품
◇ 가구 장식품 부품
◇ 붙박이장 부품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찾아 오는 길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봉